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제1독서	신명기 18, 15-20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코린토 1서 7. 32-3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 마르코 1, 21 L -28
봉헌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성체성가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퇴장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4주일 1월 28일	연중 제5주일 2월 4일	연중 제6주일 2월 11일
제1독서	권명자 율리안나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정경재 엘리사벳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권혜원 로사리아
친교봉사	황선동 스테파노	이금주 베드로	

## 오늘의 묵상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시편 저자의 말씀은 참된 신앙인이 향해야 할 중요한 영의 감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진 감각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그들이 듣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란,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소외된 이를 뜻합니다.

영이 더러운 사람은 영이 맑은 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비교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아본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분이 나타나셨으니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영이 달아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고 칭송하면서도 자신들의 더러운 면도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왠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서로의 영을 맑게 해 주는 사람들이 만나면 빛이 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성령께 의탁하면 우리는 맑은 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2분 교리

### 화살기도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매달리듯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하고 짧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등 단순하게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리듯 순간순간 주님께 자유롭게 짧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 염경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 속의 생각과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고자 특정 기도문을 뜻을 새기며 소리를 내어 외우며 바치는 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바치게 되는 염경기도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 오늘의 미사지향

<1월 21일(일)>

봉헌금	\$434.00
교무금	\$280.00
	김연자(1-12), 박영희(1)
수요 치유 미사(1월 17일)	\$40.00
미사에물	\$80.00
황선동 구역 잔액	\$353.00
<b>Total</b>	<b>\$1,187.00</b>

